

“동북아 중심 등 5대 시정·138개 과제에 16조 투입”

‘살고 싶은 도시’ 박남춘 인천시장의 100일

인천시가 시정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선7기 4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100일 간의 소회와 함께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과 분야별 시정과제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탈한 탈권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행사의 허례허식을 없애고 의전을 대폭 간소화하고, 시장실을 개방해 시민과 시장실 사이에 문턱을 낮췄다.

지난 여름 폭염 시 무더위쉼터 대폭 확대, 시청사 주변 1인 시위자를 위한 그늘막 설치, 상수도검침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작지만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왔다.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고식으로 진행되던 형식적인 회의는 없애고 시장이 실·국을 찾아 직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부터 평가까지 통계·빅데

소통채널 넓히고 국비 확보 구슬땀 토론회·투표 등 시민들과 함께 민선 7기 시정운영 로드맵 완성 “새로운 인천 위한 소명 완수할 것”

이터 기반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인사제도 개선과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위해 10월 중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정의와 소통, 협치,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시정철학 실현을 위해서도 착실히 준비해왔다. 조직개편을 통해 협치, 소통, 혁신 조직을 대폭 확대해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도 대폭적인 개편을 구상 중에 있다.

취임하자마자 군·구 단체장 워크숍,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해 협치의 길을 열었고, 정부, 정당,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과 57회를 만나 소통하면서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 시장은 이날 “출범 후 100일 동안 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시

민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민선7기의 첫 문을 잘 열 수 있었다”며 “새로운 인천은 이제 또 시작이다. 민선7기는 묵묵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인천 발전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공모와 온오프라인 투표, 시민토론회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이 직접 민선7기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결정했고, 시민, 내·외부 전문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의 기초를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등의 5대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20대 시정전략과 138대 시정과제를 확정해 민선7기 시정운영의 로드맵을 완성했다.

첫 번째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민선7기의 철학이 담겨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로 주요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혁신적 변화를 모색한다.

두 번째 시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으로 도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잘사는 인천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서해와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양친수 도시 사업도 추진한다.

세 번째 시정목표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이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기반으로 제2의 개항을 열어가고 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4차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와 연계한 일자리 확대와 창업지원,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민선7기 5대 시정목표와 138대 시정과제 실현을 위해 비예산사업 21건을 제외하고, 117개 사업에 약 1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민선7기 임기 내에는 약 9조 8천억원이 소요되고, 국비 등을 제외한 시비는 1조 7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8대 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32건으로 향후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법규는 2019년까지 모두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금융의 ‘지속 가능 성장’ 해법 제시

서울시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 오늘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진행

서울시는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금융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지속가능금융활성화방안과 금융중심도시의 역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도전·기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등 총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조연설은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

안 및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ING 은행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헤드인 레오니 슈레브가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와 사회적 금융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고,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확대 방안, 서울시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도전·기회와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롱텀 후오 시티 오브 런던 그린 파이낸스 국제고문 및 인베스틱 에셋 매니지먼트 대표, 마이크 워들 지엔그룹 인텍스 대표, 조나단 드루 H SBC 홍콩지사 인프라스트럭처 앤 리얼 에스테이트그룹 매니징 디렉터가 연사로 나선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및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이스라엘, 호주 등 선진 금융도시의 사회적 금융 사례와 서울시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슈로미 지드키 소셜 파이낸스 이스라엘지사 최고운영책임자, 케이티 피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총리실 사회 투자·혁신부 디렉터, 아서 우드 토탈 임팩트 캐피털 창업자 등이 참여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국제금융콘퍼런스는 세계 경제, 금융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금융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변화와 아시아 중심지로서 서울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전문가와 일반 시민, 그리고 미래 전문 금융인을 꿈꾸는 학생 등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올 가을 첫 미세먼지 엄습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장대에서 관광객들이 뿌연 수원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 겨울 AI 최소화’... 경기도 선제방역 돌입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에 24억 투입

경기도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에 나선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년 겨울철에 비해 올해 초 도내 AI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됐다. 실제 2016~2017년도 동절기에는 124건이 발생했으나 2017~2018년에는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전 대규모 발생을 계기로 오리농가 사육제한, AI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살처분 및 7일간 발생 시군 이동제한,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 알차량, 분뇨차량 등 위험도가 높은 차량의 농장 출입차단이 함께 추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추진에 10억 원,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조



경기도가 방역살수차를 동원해 도내 시군에 선제적 방역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경기도

기운영에 14억 원을 투입하고, 산란계농장 알 반출 및 분뇨반출을 중점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 AI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축분뇨처리업체, 식용란수집 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소독설비 가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능가만 방문하도록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듬는 ‘권리보호센터’ 문 연다

서울시는 16일 국내 최초로 ‘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안국역 인근 운현 SKY빌딩 9층에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조직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뜻한다.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요양 보호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260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에서는 무료 심리상담, 감정회복을 위한 치유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도자기로 韓 식문화·쌀의 역사 되짚는다

한국도자재단 ‘알알이 쌀알’ 전시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1월 8일까지 인천세계도자센터특별전 ‘알알이 쌀알’을 개최한다.

알알이 쌀알 특별전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018 이천 쌀 문화축제’ 연계 전시로 도자기를 통해 한국인의 식문화와 쌀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천한봉, 김정옥, 황종례, 신철, 김도영, 척 하인즈, 호시 토시로, 신조사다즈구, 후야나 멘도사 등 국내외 도자작가의 작품 49점으로 구성된다.

1부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식기와 농경시대의 제기를 추정해볼 수 있는 토기와 도기를, 2부에서는 근대의 쌀독과 밥술 등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3부에서는 조선시대 식생활을 대표



한국도자재단이 ‘알알이쌀알’ 특별전을 위해 작업실에서 작품구상 등 기획을 하고 있다. /한국도자재단

한 막사발인 이도다완 작품으로 구성되며, 이도다완을 재현해 낸 ‘조선 다완의 거장’ 천한봉 명장의 작품 뿐 아니라, 김정옥 명장, 황종례 작가, 신철 작가 등 다완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명장들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이 전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경기 이천=김승열 기자 kimsy@